

2007년 서유럽 연수 결과보고



목포시의회

2007년 서유럽 연수결과보고

- 연수기간 : 2007. 4. 23(월) ~ 5. 2(수)
- 연수국가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 연수대상 : 18명(시의원11, 공무원7)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

목 차

- 연수배경
- 연수개요
- 연수결과 [방문국가별 주요방문기관]
 - 프랑스
 - 스위스
 - 이탈리아
 - 독일
- 우리시 시책화 사업
 - 섬 개발을 이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주택단지 조성
 -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
 - 남골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쉼터로 활용
- 주요명소관광
- 연수소감



연수배경 및 연수개요

연수배경

- 관광객 유치에 대한 특별한 국가의 정책 없이 세계적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유럽의 관광사업 실태를 시찰
- 사회복지시설, 장묘문화, 친환경 농산물 재배 기관 등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례 벤치마킹
- 하수도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실태 등 선진국의 우수사례 시찰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07. 4. 23(월) ~ 5. 2(수)
- 연수국가 :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 연수대상 : 18명(시의원 11, 공무원 7)

소 속	직위(급)	성 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목포시의회	의 장	박 병 섭	목포시의회	의 원	조 성 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박 창 수	목포시의회	의 원	최 석 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환경위원장	이 기 정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 평 규
목포시의회	의 원	고 경 석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차 명 수
목포시의회	의 원	노 상 익	의회사무국	행정7급	김 순 희
목포시의회	의 원	박 정 훈	의회사무국	전산7급	최 영 민
목포시의회	의 원	성 혜 리	의회사무국	기능9급	이 봉 주
목포시의회	의 원	윤 양 덕	회 계 과	청사관리담당	김 영 준
목포시의회	의 원	전 경 선	목포시보건소	간호7급	이 인 자

주요 일정

주요 일정

일자	주요 일정	비고
4.23(월)	목포 → 인천 인천 → 프랑스(파리)	버스 KE 901
4.24(화)	유기농 농장방문(ferme christian pierre) 하수도박물관방문(les egouts de parks)	프랑스(파리)
4.25(수)	선진장묘문화시찰(pere la chaise)	프랑스(파리)
4.26(목)	사회복지시설(양로원)방문(stadt zurich) 알프스 영봉 티틀리스 등정	스위스(취르히) 스위스(루체른)
4.27(금)	베니스 시내 이문화 체험	이탈리아(베니스)
4.28(토)	피렌체 시내 이문화 체험	이탈리아(피렌체)
4.29(일)	나폴리, 폼페이, 쏘렌토 시찰	이탈리아
4.30(월)	로마환경청방문(AMA), 로마구의회방문	이탈리아
5. 1(화)	하이델베르크 고성 및 대학기방문 독일 → 인천	독일 KE 906
5. 2(수)	인천 → 목포	버스

프랑스



연수결과

프랑스

1. 국가현황

- 특 징 : 예술과 패션, 와인과 축구, 낭만이 가득한 나라, 박물관 문화발달
- 수 도 : 파리
- 인 구 : 약 5,977만명(2006년 추정치)
- 면 적 : 551,602km² (한반도의 2.5배)
- 종 교 : 카톨릭(82%)
- 방문도시 : 파리

2. 주요방문기관

가. 유기농 농장(FERME CHRISTIAN PIERRE)

- 방문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및 농가 활성화 방안 시찰



프랑스의 농업환경

- 프랑스 국민은 농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
- 지형은 알프스, 피레네 산맥 외에는 비교적 완만하여 국토의 2/3가 평야와 구릉으로 구성
- 농업·임업 생산지역이 본토의 82%인 4,800만 ha
(유기농 농업은 전체농업의 2%)
- 적정한 강수량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보다 농업이 성함.
- 식생활에 소요되는 농산물은 거의 자급하고 EC국가로 일부수출

프랑스



■ 농업지원제도 :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제도(CTE)

Contract Territorial d'exploitation의 약어로서 경제적사항과 국토환경적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5년간 적용되는 직접지불제도



농장 현장 방문

- **경제·고용부문** : 고용 및 노동력 유지, 품질제고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동물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투자지원
- **환경·국토부문** : 수자원보전, 토양오염방지, 공기청정화, 생물의 다양성유지, 경관 및 문화자산 보존, 자연적 위험관리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증진 활동 지원

- **장 점** : 사업추진계획을 지자체(도단위)가 지역여건에 맞춰 다양한 시책을 설계하고, 농가에서 실천하기 쉬운시책을 농가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유리함



농장운영에 관한 현황 및 정부지원제도 브리핑

■ 시사점

- 최첨단 농기계의 발달로 농장면적(300ha)를 모두 기계로 대처(직원 2명뿐)
-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는 농가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 선진국의 발달된 농기계의 도입과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 필요
- 농업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 높이 평가됨
- 농업현황을 설명하는 '크리스티앙 삐에르'씨가 농업인으로서 갖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이 프랑스 농업경제 발달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느낌
-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유기농가 방문은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었음

프랑스



나. 하수도 박물관(LES EGOUTS DE PARIS)

■ 방문목적 : 쓰레기 수거방법 및 하수구의 역사와 폐수처리장 시찰

■ 박물관의 역사

-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소설속에서 장발장이 어린아이 마리우스를 안고 하수도로 도망치는 내용의 무대가 되었던 곳
- 1200년경 필립 오귀스트가 설치한 하수도는 개천 하수도였고, 최초의 복개 하수도는 1370경에 나타남
- 나폴레옹 3세때 파리지내 재개발을 통해 벨그랑이라는 토목기술자에 의하여 근대식 하수도 모습을 갖추기 시작
- 현재 파리 시내에 2,100km의 복개 하수도가 있으며, 900여명의 인부가 관리



■ 박물관의 특징

- 모든 도로의 모퉁이에 길거리 이름과 번지수가 있듯이 지하 하수도 통로에도 지상과 같은 주소가 있음
- 수리공이 지나가면서 각 건물의 배수구멍만 봐도 누구네 집의 하수도가 막혔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함
- 파리 시내에 100m 간격으로 맨홀 뚜껑이 26,000개 존재하며 이 맨홀 뚜껑의 무게가 80-100kg임
- 50M 간격으로 물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과 하수도와 세느강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관리 운영



[하수도 박물관 시찰]

프랑스



■ 하수처리방법

세느강 하수 · 빗물 ㉠➡ 하수관(지름2.8m) ㉠➡ 파리 서북쪽 아쉐흐 하수종말 처리장
㉠➡ 처리공정 ㉠➡ 세느강(약80%) ㉠➡ 파리시내이용물(약20%)

■ 시사점

- ♦ 혐오시설을 박물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수입의 자원으로 활용
- ♦ 하수처리시설과 처리실태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볼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다. 묘지공원(PERE LA CHAISE) : 세계최고의 근대식 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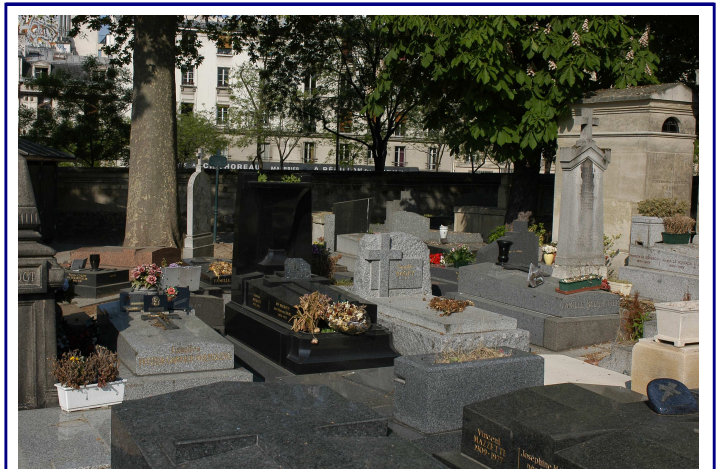
■ 방문목적 : 선진국의 장묘문화 시찰

■ 묘지면적 : 0.42km²

■ 규 모 : 분묘단지(97개), 분양묘소
(10여만개), 유해(50만명)

■ 프랑스 묘지의 역사

- ♦ 프랑스 대혁명이후 묘지정책 분야의 대개혁으로 파리의 도시 내에 있던 성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던 200여개의 묘지들이 폐지
- ♦ 이에 따라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원묘지의 효시(1804년)가 빠리 라췌즈이며 이와 비슷한 묘지가 파리시내에 19곳이나 있으며, 매년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 44에이커가 넘는 곳에 5,300그루의 나무가 있어 파리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함.
- ♦ 많은 저명인사(예술가,과학자,정치가,음악가가 이곳에 묻혀 있음)



프랑스



■ 묘지의 특징

- 곳곳에 조각품과 중세풍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묘지라기보다는 조각공원의 형태- 정부로부터 박물관으로 지정
- 묘지내 화장장이 있어 예술의 도시 파리의 이미지와는 달리 파리시내의 한복판에서 화장장 굴뚝에 연기가 솟고 있는 모습에 혐오시설에 대한 넘비현상은 찾아 볼 수 없었음
-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운영
- 묘지는 5/10/30/50/100년의 시한부로 이용
- 파리시내 연간 사망수 : 1만 6천명 (화장 2,000명 - 약13%)
- 대부분이 가족묘 형태로 합장되고, 1기당 분묘면적도 반평이하이기 때문에 묘지난은 찾아보기 힘들



■ 시사점

넘비현상으로 외곽에 설치하기도 힘든 묘지를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설치하여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휴식처(공원)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혐오시설까지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함

스위스



스위스

1. 국가현황

- 특 징 : 외교의 독립성, 중립성, 도덕성이 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중세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
- 수 도 : 베른(Bern, 12.9만명)
- 인 구 : 약 733만명(2006년 추정치)
- 면 적 : 41,284 km²(한반도의 1/5)
- 종 교 : 로마 카톨릭(48%), 개신교(44%), 기타(8%)
- 방문 도시 : 쥘리히, 루체른

2. 주요방문기관

가. 양로원(STADT ZURICH)

- 방문목적 : 선진국의 사회복지운영실태 시찰
- 시설구조 : 96실, 식당, 취미활동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내부에는 발코니, 샤워실, 거실겸 침실로 구성.
- 시설이용료 : 110~150프랑/일(식사 및 세탁을 본인이 직접 할 경우 이용료 감면)
- 입소자 평균연령 : 87세
(대부분 80세이후 입소)
- 치매노인 집중관리 : 치매노인 입소방이 별도로 있으며 4-5명의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스위스



24시간 노인들을 간호하고 있으며, 병원이 5분거리 이내에 있어 위급사항 발생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치매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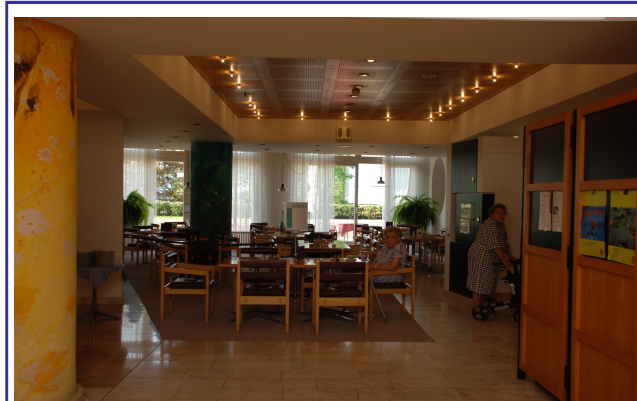
■ 내부시설



[화장실 및 욕실]



[복도]



[공동식당]



[방 내부]



[주방시설]



[이용자별 약 비치대]

스위스



■ 시사점

- 시설내부는 일반 가정집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로 우리나라의 시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음
- 우리나라의 양로원 시설은 노인들만의 특유의 냄새로 다소 거부감이 느껴지는 면이 있으나 스위스의 양로원 시설은 냄새가 전혀 없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 입원비는 소득과 입원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여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양로원 시설은 대체로 단체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에서는 1:1의 개념으로 개인성향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이탈리아

1. 국가현황

- 특 징 :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융합
- 수 도 : 로마(Rome, 280만명)
- 인 구 : 약 5,875만명 (2006년 추정치)
- 면 적 : 301,230km² (한반도의 1.5배)
- 종 교 : 카톨릭(98%)
- 방문 도시 : 밀라노, 베니스, 플로렌스, 로마,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피렌체

2. 주요방문기관

가. 로마환경청(AMA) : 지자체 환경기업

- 방 문 목 적 : 도시환경정책 및 쓰레기 처리환경 실태 시찰
- 종 업 원 수 : 6,400여명
- 지 역 사무실 : 76개
- 공 장 보유수 : 5개
 - 폰테 말로메 : 병원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100톤/1일처리량)
 - 로카 센시아 : 선별작업을 하는 공장(100톤/1일선별수용능력)

이탈리아



- ◆ 토르 파그노타 : 폐기물 관리, 차별화된 수거와 차량관리본부로서 레일이동으로 하는 폐기물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
 - ◆ 사 라 리 오 : CDR과 천연퇴비 생산공장
 - ◆ 라 유 렌 티 노 : 로마 공공요금 서비스 부서와 AMACITY 부서의 본부
- 6개의 생태섬과 7개의 수거센터
- ◆ 폐기물 처리비용 : 무료
 - ◆ 처리가능 쓰레기 : 폐기물, 활성이 없는 물질, 냉장고, 가정용 도구들, IT용 물건들, 자동차 건전지, 네온, 재활용 물건들, 나무, 금속, 제지, 판지 등
- 주요서비스
- ◆ 도시폐기물, 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의 수거 및 처리
 - ◆ 차별화된 수거방법
 - ◆ 의학 폐기물 처리
 - ◆ 공공지역과 사적인 지역에서의 처리
 - ◆ 퇴보된 지역의 개선
 - ◆ 낙서와 스모그로부터 청소 및 표면보호
 - ◆ 위생처리와 페스트 제거
 - ◆ 석면제거
 - ◆ 환경보호 서비스에 초점
 - ◆ 환경 컨설팅 및 하수구 정화
 - ◆ 지자체에서 고정되고 사전 제작된 구조물에 공공 화장실 운영
- 부가서비스
- ◆ 12개의 로마 공동묘지관리
 - ◆ AMA 그룹의 장례식 기업을 통한 매장 서비스 제공
- 1일 폐기물 수거량 : 4,500톤
- 연간 폐기물 재활용량 : 210,000톤



로마구의회에서 쓰레기 처리방법 및 실태 브리핑

이탈리아



■ 시사점

- AMA 그룹은 통합 환경서비스분야에서 이탈리아의 주도적인 기업으로 로마뿐만 아니라 외국도시들의 위생과 도시단장을 책임지고 있음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
- 에너지 공장, 퇴비공장, 자재선별공장 등 설비 완비
- 쓰레기 재활용 장비 시스템 구축
 - 의료시설 폐기물 \Rightarrow 에너지로 전환
 - 유기질 폐기물 \Rightarrow 농업용 비료 전환



폐기물처리를 위한 에너지공장



다용도 자재선별공장



마카레세 퇴비공장

독 일

1. 국가현황

- 특 징 :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 수 도 : 약8,241만명
- 인 구 : 약 5,875만명 (2006년 추정치)
- 면 적 : 356,885km²(한반도의 1.6배)
- 방문 도시 : 하이델베르그

시책화 추진사업

섬개발을 이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바다를 둘러싼 인공섬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한 선진국 사례를

외달도 섬개발에 다양한 건축양식을 활용하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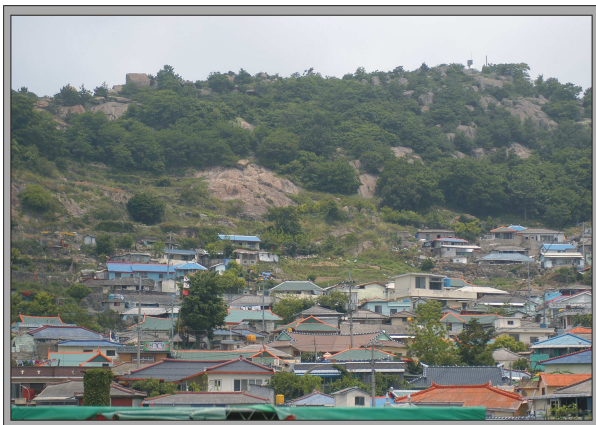
목포 외달도섬



이탈리아 베네치아 - 산마르코섬(인공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주택단지 조성

자연훼손을 줄이고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단지 개발을 조성하여 도시의 미관을 높이는 효과창출



서산온금지구 주택지대



스위스의 자연과 어우러진 산악지대 주택단지

시책화 추진사업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됨



우리시 자전거도로



이탈리아 로마의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납골묘지를 공원으로 조성 시민쉼터로 활용

묘지시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곽지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이 곳 빠리라쉴즈묘지는 파리시내 중앙에 설치된 공원묘지로 주민쉼터로 활용되고,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이 많이 안치되어 있어 역사교육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우리시 유달공원묘지



프랑스 파리 공원묘지

주요명소관광

주요명소관광

프랑스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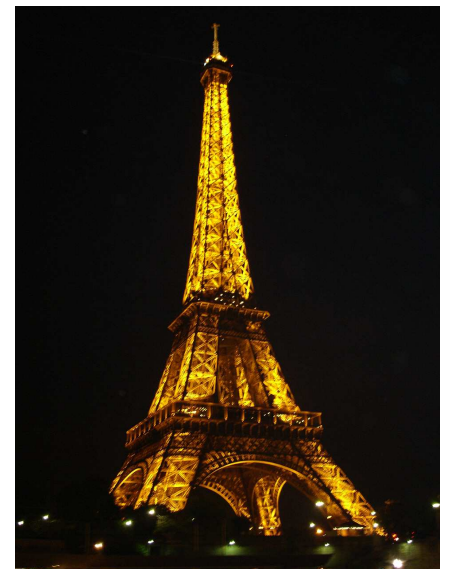
1. 개선문(Arc de Triomphe)

- 1805년 나폴레옹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문
- 높이 50m, 폭 45m로 에트왈 광장의 대표적 상징물
- 공사기간만 30년이 걸렸으며, 나폴레옹 자신은 건물 완성전 생애를 마침
- 빅토르 위고의 장례행렬과 제1차세계대전의 승전 퍼레이드가 이 문을 통과
- 1944년 8월 드골이 빠리 해방 선언을 했던 곳.



2. 에펠 탑(Tour Eiffel)

- 건설목적 : 1889년 프랑스대혁명 2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를 위해
- 건설기간 : 1887년 1월 28일부터 27개월간(50명의 엔지니어와 132명의 숙련공 투입)
- 건설자 : 구스타프 에펠(GUSTAVE EIFFEL: 1832-1923)
- 공식적으로 처음 오른 사람 : 에두아르(EDOUARD) 7세와 그 가족 (1889년 6월 10일)
- 높이 : 320.755m(안테나 포함)
- 무게 : 7,175톤
- 재료 : 철골(18,000개), 리벳(250만개)
- 계단수 : 1,652 개
- 활용용도
 - 오늘날 파리 최대의 관광수입원이며, TV 송신탑으로 활용
 - 에펠탑의 야간경관조명시설은 세계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주요명소관광

3. 몽마르트르 언덕(Montmartre) 주변

- 해발 129m, 썬드니(St. Denis)가 순교 한 곳을 '순교자의 언덕'이라 불림
- 19세기 말 르누아르, 고흐, 로트렉, 피카소 등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가 촌을 형성
- 사크레쾨르 사원의 계단에 서면 파리 시내의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감상 할 수 있음



[사크레쾨르(Basilique du Sacre-Coeur) 사원]

♠ 사크레쾨르(Basilique du Sacre-Coeur) 사원

- 파리시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의 언덕위에 세워진 비잔틴 양식의 성당
- 1876년부터 40년동안 건축
- 보·불전쟁에서 패한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성금을 모아 지음

♠ 뎀르뜨르 광장

- 몽마르트르 광장에서 '작은언덕'이라는 뜻의 뎀르뜨르 광장으로 개명
- 광장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곳곳에서 여행자를 반기는 화가들이 즐비해 있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실감케 하는 광장



[뎀르뜨르광장]

주요명소관광

이탈리아(밀라노)

1. 밀라노 대성당

- 도시 중심부의 Duomo(두오모) 광장과 접해 있는 흰 대리석의 대성당
- 이탈리아 고딕건축의 대표적인 건물
- 길이 157미터, 폭 92미터, 높이 108.5미터 성당으로 세계 두 번째 규모
- 135개의 뾰족한 첨탑과 3,159개의 성자와 사도들의 조각군
- 1386년 비스콘티 공작의 명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어 비스콘티 450년 후인 19세기 초에 완성
-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에서 맑은 날은 알프스 산맥까지 볼 수 있음
- 우리 일행 방문시에는 건물 보수공사로 인해 내부 방문 불가



베네치아

1. 산 마르코(San Marco) 성

- 방어목적, 상업목적으로 1400년경 형성된 섬
- 서기 300년말 베네치아인들이 후대들의 대대적인 침략들을 피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 정착
- 서기 400년 중반기에 15만여개의 통나무들로 테두리를 만들어 지반을 완성
-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건축으로 인정
- 베네치아의 중심인 산마르코 성이 지금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



2. 산 마르코(San Marco) 광장

- 대리석 광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
- 길이 175m, 폭 80m인 거대한 '살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운하로 연결
- 수십만 마리의 비둘기떼가 광장을 노닐고 있는 모습은 평화의 전당같은 느낌을 줌

주요명소관광

3. 산 마르코(San Marco) 성당

- 2명의 상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온 성마르코 유골의 납골당(納骨堂)으로 세워진 성당
- 건축양식은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
- 11세기 말에 현재의 산마르코성당이 재건
- 그리스 십자형의 바실리카로 다섯개의 동방적인 돔을 받치고 있으며, 파꽃형의 아치와 고딕풍의 천개가 이어진 정면(파사드)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대리석 건축으로 황금빛의 배경을 지닌 모자이크 벽화로 장식
- 외부와 내부를 뒤덮듯 장식된 모자이크 벽화는 12~17세기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미술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로 보존됨
- 내부는 그리스 십자형 위의 다섯 개의 큰 원천정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성마르코의 업적을 말해주는 12~13세기의 그림을 비롯하여 티치아노의 바탕그림에 의한 모자이크 등이 장식



4. 두칼레궁전과 탄식의 다리

- 산마르코 광장의 동편에 있는 베네치아 공국의 정부청사로 9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막강한 베네치아 권력의 상징
- 비잔틴 고유 양식으로 건축
- 궁전의 외관은 고딕 양식을 따랐으며, 입구의 열주에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조각한 장식이 있음

주요명소관광

- 궁전의 동쪽으로 소운하를 사이에 두고 감옥과 다리로 연결되는 다리를 탄식의 다리라고 하는데, 이 다리를 건너 프리지오니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한숨을 지으며 건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렌체

1. 두오모 성당 (Duomo)

- 피렌체의 상징으로 강성한 피렌체 공국의 종교적 중심지
- 원래 이름은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로 꽃의 성모교회를 의미
- 1296년 공사시작으로 170여년만에 완성
- 성당 수용가능 인원 및 높이 : 3만명, 114m
- 컵을 씌운듯한 반원형 지붕, 꾸뿔라에 그려진 바사리의 프레스코화 '창세기' '최후의 심판' 본당뒤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빼에따'가 인상적
- 성당 외벽은 흰색, 분홍색, 녹색의 대리석을 기하학적 형태로 장식하고, 골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정교한 건축기법 도입

2. 시뇨리아 광장(Piazza della Signoria)

- 피렌체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널찍한 공간
- 과거에는 도시의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토론장이나 거수로 정사(政事)를 결정하던 곳
- 피렌체를 일으킨 꼬지모 메디치의 청도기마상과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들이 즐비해 있음
- 미켈란젤로의 걸작 <다비드>의 진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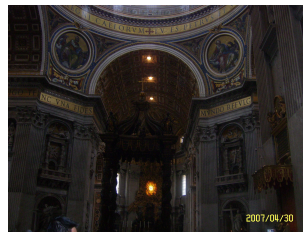


주요명소관광

로 마

1. 성 베드로 성당

- 교황 니콜라우스 5세가 베드로의 권위를 살리고자 건축한 성당
- 어마어마한 공간속에 완성시킨 조화와 호화로움의 극치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의 결정관
- 1506년 착공, 1626년까지 증개축을 반복해 완성
- 길이 211.5m 높이 45m
-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교회가 발행한 면죄부(免罪符)의 부당함을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 마틴 루터가 발표하여 종교개혁의 신호탄 유발
- 라틴 십자가 형태의 성당 정면은 높이 27M의 8개 기둥이 있고, 13개의 동상이 있음
- 성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3개 - 3개의 청동문 가운데 중앙에 있는 문은 옛 성당의 것을 옮겨 놓은 것
- 건축자재를 로마의 유적지에서 충당해 많은 문화유산의 훼손 초래



주요명소관광

2. 콜로세움(Colosseo)

- 고대 로마의 유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형 경기장(4층)
- 둘레 527m, 높이 48m에 이르는 거대한 극장으로 8년이라는 단기간에 손색없는 웅장한 건물을 건축한 로마의 건축 기술이 놀랍게 느껴짐
- 내부는 최대 지름 78m, 최소 지름 46m의 타원형 그라운드와 있고, 5만명 수용
- 80개가 넘는 아치문이 있었고, 관객은 10분이면 착석이 가능했다고 함
- 모의 해전장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나 배수처리문제로 검투장으로 사용
- 현재의 콜로세움은 지진의 영향으로 반동강 난 것 같은 모습으로 허물어진 잔해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왕궁, 다리, 찰 삐에트로 성당의 건축자재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후에 기독교 성지로 지정되면서 교황령에 의해 복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폼페이

1. 폼페이 유적지

- 로마시대의 부유층의 호화로운 저택
- 베수비오 화산의 거대한 폭발로 인해 멸망 후 18세기에 발굴시작
- 용암이 아닌 화산재에 덮여있어 2,000여년전의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
- 3m가 넘는 화산재 속에 파묻혀 있던 도시는 현재 70%정도 발굴된 상태
- 완벽한 하수구시설을 갖추었지만 수도관이 납으로 되어 시민들은 납중독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함



주요명소관광

독 일

1. 하이델베르크 성

-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1386년 설립)이 자리한 곳
- 학문의 도시로 유명(전체인구 14만명 가운데 3만여명이 학생)
-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 혼합
- 현재의 건물은 17세기 구교도와 신교도가 벌인 30년 전쟁과 성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팔츠 계승전쟁과 벵골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괴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



[철학자의 길로 가는 카를 테오도르다리]



연수 소감

서유럽 연수 일정은 한마디로 “와~” 감탄에 감탄을 연발케 하는 일정이었다.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여 후손들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 별도의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관광객 유치에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없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다. 또한 세계적인 부유 강국임에도 소박하기만 한 국민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과 가히 너무나 비교가 되는 한 부분이었다.

선진국의 궤도에 들어선다는 것이 이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지도 몸소 느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레 연수를 실시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연수일정은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이라는 타이틀 아래 공식기관 방문 중심으로 짜여졌고, 연수자들은 다소 뻑뻑한 일정에 지치고 힘들기도 하였다. 또한 공식기관방문 컨택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서유럽의 현실태가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으로 각급 기관에서 받기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선진국의 문화를 체험해 본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라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연수를 통해 그 의미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 각국은 한걸음 한걸음 옮기는 곳마다 우리들이 눈길과 발길을 잡는 작품들 뿐이었다.

세계의 부유강국임에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형자동차가 대부분이었다. 유럽국민들은 자동차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라 불릴 만큼 중형자동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의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유럽 국민들의 소박한 국민성은 우리가 배워온 가장 큰 연수 결과의 성과 중에 하나였다.

‘개개인의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이 바로 부국강국을 만들어내었구나!’ 우리는 이 느낌 하나만으로도 이번 연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고 자부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토는 좁지만 세계 강대국의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목포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의원으로서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누림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본보기가 되어 작게는 의원 개개인이 속한 지역구에서, 크게는 목포시는 물론 세계강국 한국을 만들어가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납골묘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꺼려하여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지만, 프랑스 빠리의 묘지문화는 묘지라기 보다는 인간의 사후세계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듯 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역사교육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유럽국민들의 소박한 국민성과 깨어있는 의식들은 우리들이 앞으로 배워서 실천해야하는 당연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의원 서유럽 연수결과 보고서 발간에 앞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된 지 벌써 17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간의 경쟁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년 의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국회의



우수한 선진문화시설 등을 비교 체험하고 의원들의 안목을 넓혀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연수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실있는 연수일정을 가지고 출발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대단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출발전부터 서유럽 연수일정은 대단히 고된 일정이라는 여행사측의 사전설명에 약간의 근심이 앞서긴 했지만 힘들었던 여정이었기에 더욱 더 값진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수체험기는 저를 포함한 연수에 참석하신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연수시 보고 느꼈던 사항들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본 체험기가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선진국의 이문화 체험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체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차후 연수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의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